

빈사상태의 精油産業

—油價·換率連動制의
도입을 촉구함—

金 乾 洽

(大韓石油協會 弘報室長)

정 유산업이 빈사상태에서 신음하고 있다. 정 유산업은 지속적인 환율상승에 따른 손실누적과 만성적인 수지적자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로 존립기반마저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최근 정유업체가 油價·換率連動制의 조속한 실시를 관계당국에 건의한 것도 따지고 보면, 만성적인 수지적자를 해소해보려는 몸부림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유업체는 이번 건의에서 지금까지 업체가 수차에 걸쳐 촉구해온 油價·換率連動制를 조속히 도입하여 유가조정요인이 1% 발생할 때마다 이를 제품가격에 반영시키고, 또 지난 83년 12월 1일부터 84년말까지 換率상승에 따른 업체의 손실은 관세와 석유사업기금 인하로 충당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국내석유제품의 소비자가격중에는 석유사업기금, 관세, 특별소비세등 각종 정부부문비용이 약 24%(연간 1조7천억원 규모)나 포함되어 있어 국내유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업체의 환율손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에 약 3천6백억원의 징수가 예상되는 도입원유에 대한 관세와 석유사업기금의 우선적인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지난 83년 4월에 原油관세를 부과하고 석유사업기금을 인상했던 취지가 앞으로 油價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관세를 및 기금징수율의 인하조정으로 흡수하여 국내석유제품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石油製品 소비자가격중 정부부문비용 내역

관 세	2.9%(原油 CIF의 5%)
방 위 세	1.6%(原油CIF의 2.5%)
특 별 소 비 세	6.3%
부 가 가 치 세	10.0%
법 인 세	0.2%
무 역 특 계 자 금	0.2%
석 유 사 업 기 금	2.4%(배럴당 1.25달러)
합	23.6%

국내 정유업체는 지난 79~83년의 5년간 정유사업에서 총 2백62억원의 누적결손을 기록한데 이어 84년에도 17억원의 저조한 경영실적을 나타냈다. 지난해 정유사업의 손익 17억원이라는 규모는 家電

3社의 3백79억원, 시멘트 4백11억원, 자동차제조업 5백89억원, 섬유업 2백23억원과 비교하면 극히 저조한 실적임을 알 수 있다.

정유사업의 손익추이(1979 - 1983)

(단위 : 억원)

	1979	1980	1981	1982	1983	합계
정유사업	15	△ 575	△ 246	529	15	△ 262

84년도 정유사업 손익현황

(단위 : 억원)

油公	湖油	京仁	雙龍	極東	計
108	△88	9	30	△42	17

79~83년 기간중 2백62억원의 누적결손을 나타내며 이어 84년에도 17억원이라는 저조한 경영실적을 가져온 근본원인은 현油價체제의 구조적인 모순에 기인되고 있다. 즉 석유제품가격조정은 항상 환율이 향후 변동없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나, 실제로는 환율이 상당한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정유업체는 油價에 반영된 환율과 실제환율과의 차이로 인한 추가원가부담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지난 83년 油價조정시 당시 환율이 美 1달러당 7백97원90전을 기준으로 앞으로 환율이 전혀 오르지 않으리라는 전제로 현행 油價가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난 84년말 현재 환율은 4%나 상승했다. 이로 인해 精油業界는 1천2백억원의 원가부담을 안게 되었으나, 현물시장의 低價原油도입과 경영합리화등 자구적 노력으로 7백억원의 손익개선효과를 거두어 환율손실요인을 5백억원으로 축소시켰다. 그러나 이 5백억원의 손실요인은 그대로 남아 정부가격심사기준에 따라 油價에 반영된 이익을 상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올해 들어서도 환율은 지난 3월 8일 현재 2.44%나 올라 올해 환율이 전년도 수준인 4% 상승에 머문다 하더라도 4천1백50억원, 6%가 오를 경우에는 무려 4천9백60억원의 추가부담을 안게 되는데 비해 이익개선요인은 原油價 하락으로 인해 추정되는 5백90억원 뿐이므로 결국 엄청난 결손을 피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精油業界가 막대한 결손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것은 石油化学, 發電 등의 다른 사업부문에서 발생된 것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별도의 자본투입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이며, 정부의 별도가격관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수익성이 있는 기타사업부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精油社의 '경우는 더욱 수익성이 저조한 실정이다.

精油産業과 주요업종의 수익성을 비교해 보면, 79~83년 기간중 정유산업은 총 2백62억원의 누적결손을 보인데 비해 電氣 9천2백60억원, 家電 9백58억원, 제약 6백42억원, 시멘트 6백19억원의 이익을 올려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 이 기간중 정유산업의 자기자본이익률은 마이너스 3.1%로서 화장품과 제약의 16.7%, 연탄의 14.8%에 비해 크게 저조하며, 또 精油産業의 매출이익률은 마이너스 0.1%로서 전기 8.7%, 제약 5.0%, 화장품 4.8%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수익성의 불균형은 특히 석유제품과 마찬가지로 정부고시가격을 적용받는 연탄업이나 정부결정가격인 전기업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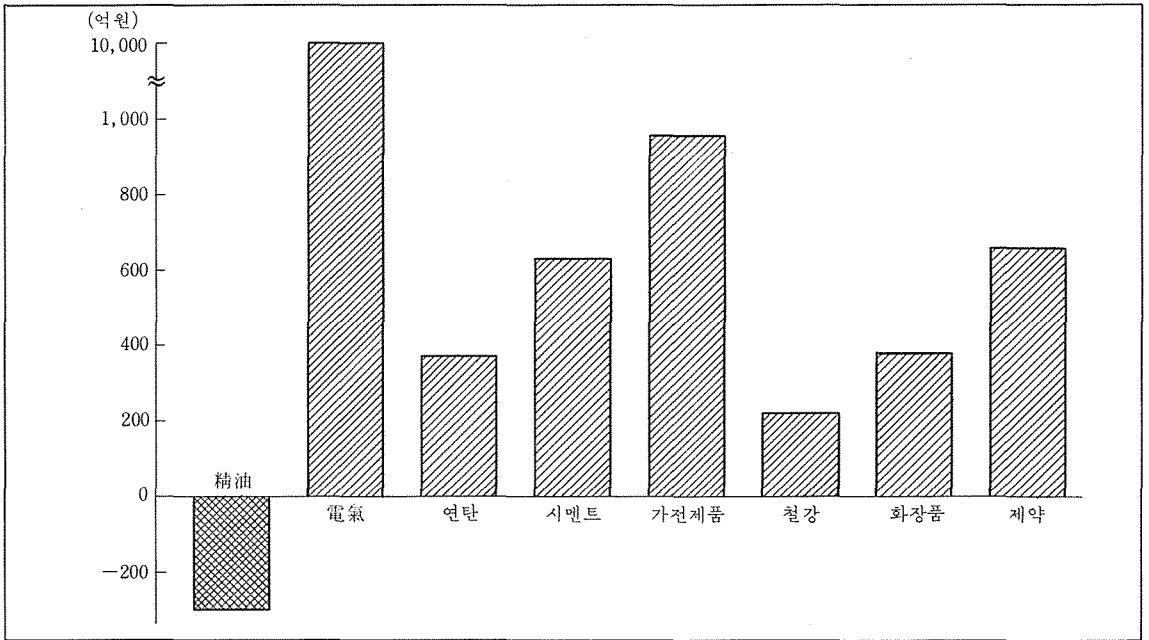
국내정유업체는 환율상승에 따른 손실 외에도 油價조정요인의 사후적, 제한적 반영으로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또 여기에 두 차례에 걸친 原油도입유전스기기간 단축이 겹쳐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그동안 정유업체는 가중되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賃加工수출, 현물시장의 低價原油도입 및 경영합리화등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는 換差損 등의 추가부담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을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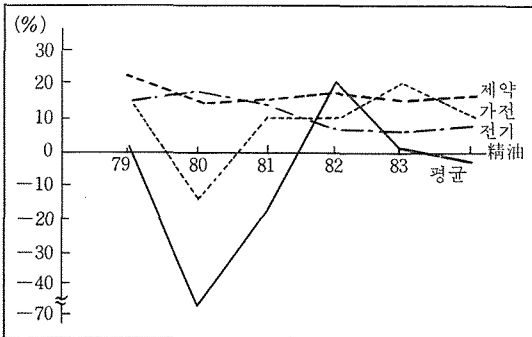
이와 같은 엄청난 누적결손은 그 규모로 보아 정유산업의 자구적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정유산업의 존립기만마저 위협을 받게 되어 안정적인 석유수급에도 중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이와같은 심각한 상황이 더 이상 방치될 경우, 국내정유산업의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되어 최근 강화된 與信관리규정에 따른 정유산업의 자기자본지도비율의 상향조정이 뜻하는 기업체질개선 방향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다.

따라서 환율이 油價에 절대적인 변동요인으로 작

순이익 비교 (7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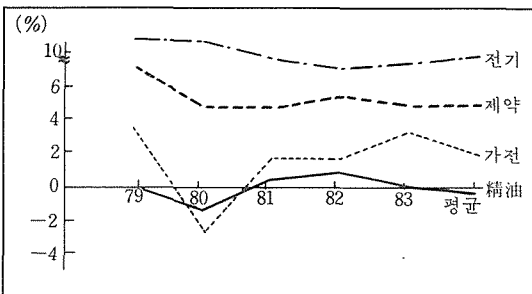
자기자본 이익률 비교



용하는 석유제품의 특성상 환율과 油價를 연결하는 油價·換率連動制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되고 있다. 현재 유럽제국에서는 換率상승에 따른 부담을 즉시 반영하여 제품가격을 조정하고 있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換率상승부담의 가격반영지연으로 원가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사후 누적된 원가부담을 한꺼번에 조정하여 연관제품과 일반물가에 급격한 충격을 주는 것을 피하고 있다.

精油産業은 석유제품원가중 換率관련비용의 비중이 높아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우리나라

매출액 이익률 비교



石油製品價格의 구성내역

6.3%	換差損(현유가에 반영되어있지 않음)
2.9%	정제비 원유도입금액비(국제금리×환율)
90.8%	原油代(原油도입가격×환율)

라가 수입하는 原油는 연간 약 60억달러에 달하여 환율이 10원만 올라도 원유비는 6백억원이 늘어나는 등 정유산업에 있어 換率이 미치는 영향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훨씬 크고 절대적이다.

換率이 1% 상승할 경우, 정유업계는 원유대상 승으로 0.94%(年 5백20억원)의 油價조정요인이 발생함과 동시에 27억5천만달러의 시설차관 및 原油도입유전스에 대한 換差損의 발생(年 2백30억원)으로 연간 약 7백50억원의 추가부담을 안게 된다. 그런데 現油價는 환율이 상승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환차손을 油價에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율이 연간 1% 오를 경우, 0.4%의 추가 인상요인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환율이 1% 오를 경우, 원유비증가 0.94%, 환차손발생 0.4% 등 모두 1.34%의 油價조정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또 환율이 연간 4% 오르면, 원유비증가 3.76%, 환차손발생 1.6% 등 모두 5.36%의 국내유가조정 요인이 발생한다.

油價·換率連動制는 이와 같이 엄청난 換率 영향에 의한 석유제품가격 조정요인을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적기에 해소함으로써 국내에너지수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油價조정요인을 제때에 석유제품가격에 반영시키지 않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안정되는 듯이 보이나, 이는 가격조정요인을 누적시켜 결국은 대폭적인 가격인상을 불가피하게 하여 국민경제에 충격적 역효과를 주게 된다. 더우기 물리적으로 가격을 억제하는 것은 정유산업의 체질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에너지공급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油價·換率連動制는 이러한 폐해를 시정하고, 가격조정요인을 소폭적으로 수시 반영시켜 수요자의 수용체질을 강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민간주도경제에 따른 油價自律化의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환율상승부담을 누적시키지 않고 국민경제가 共分하여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 전사업의 경쟁력을 배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油價·換率連動制는 환율과 석유가격간의 상관관계를 소비자에게 뚜렷이 인식시킴으로써 소비절약을 촉진시키는 측면도 있다. *

□ 世界石油市場動向 □

原油價 또 한차례 引下 압력

인도네시아가 油價를 배럴당 1~2.5달러 인하했고 英國석탄勞組 파업종식에 따른 대폭적인 석탄 增産으로 유럽지역의 燃料油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다 석유非需期인 봄철을 맞아 세계 油價는 조만간 또 한차례의 引下 哄역을 치르게 될 것 같다고 석유업계 소식통들이 지난 3월 5일 전망했다.

이같은 석유업계의 예측은 OPEC가 봄철 石油非需期인데도 불구하고, 產油量을 쿠퍼상한선인 하루 1천 6백만배럴 이상으로 늘렸고 인도네시아가 12종 이상의 自國産 원유가격을 지난 2월 1일부터 소급 인하한 것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油價 인하폭은 주요油種인 미나스油의 1달러 인하에 맞춰 배럴당 1~2.50 달러로 책정됐다고 소식통들이 덧붙였다.

석유업계 소식통들은 인도네시아가 이같이 油價인하를

단행한 것은 中共이 인도네시아의 주요輸出유종인 미나스油와 품질이 거의 같은 타칭油를 대량 공급하고 있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석유소식통들은 또 지난 1년동안 끌어온 英國석탄노조파업이 지난 3일 종결됨에 따라 석탄생산이 대폭 증가, 유황 함량이 높은 燃料油가 1당 4달러 하락했다고 전하면서 이에 따라 原油 및 석유제품 가격이 조만간 더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석유분석가들은 이같은 油價인하압력요인 이외에도 계절적으로 석유非需期인 봄철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나이지리아 등 일부 OPEC 회원국들이 석유생산을 늘림에 따라 지난 2월중 OPEC의 하루 산유량은 지난 1월중의 1천5백만배럴 수준 보다 대폭 늘어난 產油쿼터 1천 6백만 배럴을 상회하고 있어 세계油價는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